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재조명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박 서 형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재조명

지도교수 김 규 동
민 경 훈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학 전공
박 서 형

박 서 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월

위 원 장 Hilary Vanessa Finchum-Sung (인)

부위원장 김 규 동 (인)

위 원 민 경 훈 (인)

국문초록

지금까지 음악교육계에서 논의되어 온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대체로 『국가』 2, 3권에 나타난 에토스론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취급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온』, 『법률』, 그리고 『국가』 10권 등 여러 대화편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에토스론에 더해 위의 대화편들의 논의까지 종합하여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비롯되는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의 음악교육사상 전반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인류지성사에서 음악교육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해 최초로 제기된 체계적인 논의일 뿐만 아니라,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교육사상 중 하나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지닌 위상과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라톤은 에토스론에 입각하여 노랫말, 선법, 리듬, 악기 등에 각각 세부적인 규제사항들을 수립한다. 그러나 그의 음악교육사상은 그 실현 과정에서 몇 가지 딜레마를 낳게 된다. 이 딜레마는 이상국가의 음악은 누가 교육하는가, 누가 이러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가, 음악가들은 추방의 대상인가 검열의 대상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며, 본 논문에서는 플라톤의 여러 대화편들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이상국가의 음악은 철학자가

만들며 교육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감정과 이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고, 음악을 철학에 종속시키려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는 미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현대 음악교육철학은 플라톤의 이러한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내재된 여러 중요한 함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교음악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음악교육의 절대적인 가치를 옹호한 그의 철학은, 음악교육을 축소하고 다른 가치와 목표에 음악교육을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방어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철학적 토대가 될 것이며, 음악교사의 지위를 고양시킨 그의 주장은 음악교사가 가져야 할 자긍심의 근원이 되며, 탁월한 음악능력과 전문성 확보 과정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요어 : 플라톤, 음악교육, 에토스론, 음악교사, 음악교육철학

학 번 : 2003-22113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방법	3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4
4. 선행연구 고찰	5
1) 서양고전철학계의 연구	5
2) 국내 음악교육학계의 연구	8
II.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분석	11
1.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국가』 2, 3권 분석	11
1) 두 가지의 예비지식	11
2) 이상국가 건설의 핵심: 교육	13
3) 음악교육의 절대우위와 에토스론	13
4) 음악의 내용: 신화	16
5) 음악의 요소: 선법과 리듬	20
6) 음악의 표현수단: 악기	25
7) 음악교육의 목적: 재확인과 요약	26
2. 음악가의 지위와 딜레마	28
1) 음악가 추방론: 『국가』 10권 분석	29
2) 음악가 검열론: 『법률』 7권 분석	34

III. 딜레마에 관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37
1. 세 가지 딜레마	37
1) 음악은 누가 교육하는가?	37
2) 음악은 누가 만들고 연주하는가?	38
3) 추방인가, 검열인가?	39
2. 딜레마의 해명	39
1) 플라톤과 전문가주의	40
2) 지식이 결여된 음악가: 『이온』 분석	44
3) 철학자의 입장에서 본 음악교사	47
4) 딜레마의 해명	51
5)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재구성	53
3. 교육적 시사점	55
1) 음악교육사적 측면	55
2) 음악교육철학적 측면	58
3) 음악교사론적 측면	60
IV. 결론	63
참고문헌	67
Abstract	73

표 목 차

[표 1]	21
[표 2]	22
[표 3]	23
[표 4]	2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사상적 배경으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주목하는 연구는 국내 음악교육학계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살펴보면,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모순들을 만나게 된다. 본 논문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특히 『국가』 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음악교사의 자격문제를 중심으로 한 딜레마들을 관찰하고, 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이 플라톤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라톤은 인류지성사에서 음악교육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논의를 제기한 인물이기 때문이다.²⁾

둘째, 주지하다시피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당대인 기원전 4세기에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고대세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었으며, 기원후 3세기에서 7세기까지 활동한 신플라톤 학파에게 계승되어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허민준, 2016: 228). 이후 현대에 이르러 분과학문으로 독립한 음악교육학이 과거의 전통과 완전히 결별하고 수립된 것이 아닌 이상,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오늘날에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1) 각주 9번 참고.

2) 음악 자체에 대한 논의는 피타고라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음악교육에 관한 사상은 플라톤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지닌 이러한 위상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이론이 완전히 해명된 것은 아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다음의 세 가지 딜레마이다.

먼저, 그는 『국가』 편 2, 3권에서, 음악이야말로 어린이들에게 실시해야 하는 최초의 공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음악교육을 이수한 이후에야 체육, 산술, 기하, 그리고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른 교과를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플라톤에게 음악이란 인간을 빚어가는 첫 단계인 셈이다. 그러나, 같은 대화편 10권에서는 당대의 음악가들을 모두 추방해야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펼친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음악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전문가들인 음악가들이 모두 추방된 곳에서, 어린이들의 첫 필수과목인 음악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두 번째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플라톤은 모든 음악가들을 추방하되, 음악 중에서는 모방적인 것을 허락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음악 중에는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에 대한 송가 등 이상국가에서 받아들여야 할 훌륭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음악가들이 추방되고 나면 이러한 음악은 누가 만들고 연주하는가?

세 번째 딜레마는 플라톤의 후기 대화편인 『법률』 편에서 비롯된다. 그는 여기에서 음악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음악가들을 추방하지 말고, 엄격한 검열을 실시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그렇다면, 플라톤에게 음악가들은 추방되어야 하는 대상인가, 아니면 추방은 하지 않되 검열로 감시해야 할 대상인가? 만일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일관된 것이라면, 모든 음악가를 추방하자는 『국가』 10권의 주장과, 추방대신 검열을 실시하자는 『법률』 7권의 주장은 양립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플라톤의 주장에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딜레마가 담겨 있으나, 국내 음악교육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의 시도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이 딜레마의 해결을 시도한다. 이는, 음악교육에 대한 최초의 논의이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논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음악교과에서 제시해야 할 입장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개정된 2015년 음악과 교육과정과 2030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교과교육방향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적 인간 육성이다.³⁾ 그러나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학 프레임을 음악교과 입장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목표는 자칫 모호한 것이 되어버리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철학적 접근에 대한 성찰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160).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특성상 문헌 연구를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의 진행을 위해,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해당하는 『국

3) 교육부(20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을 참고.

가』 편 2, 3권을 분석하고, 논의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이를 통해 플라톤이 다른 교과목이 아닌 음악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 이유를 고찰하고, 그 의미를 간략히 조명한다.

둘째, 『국가』 편 10권의 이른바 음악가추방론을 분석, 정리하여 앞서 살펴 본 2, 3권의 음악교육사상과 연결한 후,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들을 본 논문이 해결해야 할 주된 목표로 설정한다.

셋째, 이와 관련된 플라톤의 논의가 발견되는 『법률』 편 등 『국가』 편 이외의 대화편들에서 해당 논의를 추출하여 분석한 후, 이를 다시 『국가』 편의 논의와 연결하여 해결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는 플라톤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지식중심주의, 혹은 전문가주의에 대한 고찰이 진행되며, 특히 음악가의 지식의 문제가 논의되는 『이온』 편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넷째, 플라톤이 『국가』 편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주장을 전개한 이유를 고찰하고, 『국가』 편의 음악가추방론과 『법률』 편에서 제기되는 음악가검열론과의 양립가능성을 살펴보며, 앞서 제기된 음악교사의 자격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한다.

끝으로,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며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일관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밝힌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에서 인용하는 플라톤의 텍스트는 천병희의 희랍어 원전번역본이며, 필요한 경우 박종현의 원전번역본, 그리고 정암학당의 플라

본 원전번역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오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용하는 텍스트마다 하버드대학교판 영어번역본을 동시에 참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미상 중요한 부분마다 영어번역을 병기하도록 한다. 이는 고전희랍어 해독능력이 없는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원칙임을 밝힌다.

둘째,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주제로 한 국내학위논문 22건과, 국외학위논문을 우선적인 검토대상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목적과 필요성 및 차별성을 점검한다. 또한, 서양고대철학계 등 유관분야에서 연구된 국내외의 결과물도 적극 활용한다.

셋째, 주 텍스트인 플라톤의 『국가』에서 다루지는 여타의 윤리학적, 형이상학적 논의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아니므로 검토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4. 선행연구 고찰

여기에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두 분야, 즉 서양고대철학계의 성과와 국내 음악교육학계의 성과를 구분하여 고찰한다.

1) 서양고전철학계의 연구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인식하고 해결을 시도한 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결과가 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 단락에서는 이러한 학자들의 해석을 소개한 후, 그 문제

점을 함께 진단하고자 한다.

E. Havelock(1963: 10)은 『국가』 10권의 음악가추방론을 해석하면서 플라톤이 실제로 모든 음악가들을 비판하고 배척한 것은 아니며, 당시 그리스의 전반적인 문화상황을 비난하는 사회비평에 가깝다고 해석하였다. 서승원 역시 이와 유사하게 모든 음악가가 추방되면 그것은 곧 음악교육의 철폐를 뜻한다고 보았으며(서승원, 1992: 67), 이듬해의 논문에서는 이것이 당시의 세속화된 시와 예술에 대한 비판이요, 플라톤이 속한 시대 전체에 대한 비판의 일환임을 강조하였다(서승원, 1993: 158). 권혁성, 송유래 또한 이것이 당시 대중예술, 또는 쾌락일변도로 흐르는 음악에 대한 비판임을 주장하며 Havelock의 입장을 계승하였다(권혁성, 2012: 44; 송유래, 2014: 60).

만일 우리가 E. Havelock과 그의 지지자들의 해석을 적용한다면, 플라톤은 당대 음악의 경향 및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높은 도덕적 요구에 기반한 정화작업을 통해 음악의 품격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우리는 플라톤 당대의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고대 그리스 무시케(*mousike*)의 대표적인 종합예술 장르인 비극만 하더라도 플라톤 당시의 비극 작품 중 단편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작품이 단 하나도 없다(서승원 1993: 143). 따라서, Havelock과 그의 지지자들의 해석을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매우 빈약한 자료를 통해 추정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학문적인 논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국가』 10권에서 플라톤은 ‘모든’ 음악가들의 행위를 본질적으로 모방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음악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당대의 음악가들을 선별적으로 배척하였다

는 해석은 성립하기 힘들다. 이는 텍스트에 근거를 두지 않은 해석이다.

E. Havelock과는 달리 J. Annas(1998: 282)는 『국가』 10권의 음악가추방론을 근거로 플라톤이 모든 음악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여 그 가치를 훼손시켰고, 음악을 근본적으로 하찮고 주변적인 것(really trivial and marginal)이라고 보았기에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국가』 2, 3권에 나타난 플라톤의 주장과 맞물릴 수 없게 된다. 만일 J. Annas의 의견대로 플라톤이 음악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면, 왜 그는 『국가』 2, 3권에서 이렇게 사소한 과목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최우선으로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하는가? 왜 그는 이렇게 사소한 과목의 교육에 그렇게 세부적인 선별의 지침을 내리고, 음악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기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J. Annas의 해석을 수용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딜레마에 주목한 반면, 김영정은 세 번째 딜레마에 주목하였다. 그는 모든 음악가를 추방하자는 『국가』 10권의 주장과, 추방대신 검열을 실시하자는 『법률』 7권의 주장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의 딜레마라기 보다는, 플라톤이 나중에 인간의 감정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었기 때문에 중기 작품인 『국가』에서보다 후기 작품인 『법률』에서 음악가들에 대해 더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하였다(김영정, 1998: 44).

그러나 이 해석에는 다음과 문제점이 제기된다. 플라톤이 인간 감정에 대해 보여준 태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플라톤은 후기 작품인 『법률』에서도 중기 작품인 『국가』에서와 같이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가』에서 플라톤이 인간의 영혼을 이성, 감정, 신체적 욕구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이성이 주도권을 차지하여 나머지 두 부분을 다스리는 상태를 바람직하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다(『국가』 444c-e). 플라톤은 『법률』의 서두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을 함양하는 교육 외에는 교육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자고 주장하며 이성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또, 즐거움이나 괴로움 같은 감정들은 인간 이성의 판단 아래에 놓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법률』 1권 644a-d). 따라서 플라톤이 인간 감정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고, 이에 따라 음악가에 대한 추방하는 대신 검열을 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국내 음악교육학계의 연구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국내 논문은 현재까지 22건의 석사학위 논문과 3건의 학술지 논문이 집필되었으며,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들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중 대부분이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상세하게 소개된 『국가』 편이 원전에서 최초로 번역된 1997년 이전의 연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전이라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일

4)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재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정부분 부합하는 흐름이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⁵⁾

둘째, 플라톤과 다른 사상가의 음악교육론에 대한 비교연구들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플라톤과 공자의 음악교육사상 비교이며,⁶⁾ 프뢰벨과의 비교연구도 1건이 확인된다.⁷⁾ 이들은 공통적으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에토스론(Doctrine of *Ethos*)에 주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에토스론은 각각의 선법과 악기에 고유한 특성, 즉 에토스가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영혼에 다양한 도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플라톤의 논의이다. 이들은 플라톤의 에토스론을 공자의 예악론, 혹은 프뢰벨 교육론과 비교하며 공통점을 소개하여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공헌하였다.

셋째,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현대 학교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 최근의 연구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비교연구자들이 에토스론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들은 에토스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음악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⁸⁾ 다시 말해, 이들은 전인교육 실현의 수단으로서 학교음악교육에 주목하였으며, 그 이론적 근거를 플라톤의 에토스론에서 찾았던 것이다.⁹⁾

5) 여기에 해당하는 총 6건의 논문 중 전호철(1985), 김춘미(1993), 김정자(1994), 안은진(1997) 등 4건이 박종현(1997) 이전의 연구이며, 최근의 연구로는 강연주(2010)가 있다. 방희정(1998)은 서양고중세 음악교육사의 한 단계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소개하였다.

6) 김종부(1986, 1990), 이미라(1993), 김경애(1989), 백수안(2006), 이선채(2007).

7) 이화선(2009).

8) 특히 김후량(2003: 10-38)을 기점으로 에토스론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소개에 가까웠던 이전의 연구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진일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연대순으로 유정원(1995), 문영수(2000), 문택석(2001), 김후량(2003), 손효선(2008), 박인애(2010), 임영희(2011), 권지혜(2012), 조향숙(2013)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박현구(2009), 김경희(2010), 이영리(2010)는 이 에토스론을

이처럼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국내 음악교육학계의 연구는 단순 소개와 비교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실제 학교교육에서의 음악교과의 위상과 가치를 논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질적, 양적인 발전이 있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딜레마의 해결에 대한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¹⁰⁾

최근 연구의 추세대로 학교음악교육의 가치가 개별교과의 지식전달의 차원을 넘어 전인교육의 실현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철학적 배경이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라면, 학교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언급에 앞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딜레마의 해결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음악교육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의 시도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인 검토를 토대로 이 딜레마의 해결을 시도하며, 더 나아가 음악교육에 대한 최초의 논의이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선명한 이해를 도모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논문을 통해 학교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옹호하는 이론적 배경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반으로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한다.

10) 이 중 문택석(2001)과 임영희(2011)가 교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으나, 문택석(2001)은 주로 교과목과 교사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치중하고 있으며, 임영희(2011) 역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서 누가 음악교사가 되어야하느냐는 질문은 설정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I.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분석

1.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국가』 2, 3권 분석

1) 두 가지의 예비지식

가. 고대 그리스의 ‘음악’개념: *Mousike*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밝혀두어야 할 것은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음악개념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최초의 고대 그리스 음악 중 하나는 디오니소스신을 기리는 종교제의에서 비롯된 *choreia*이다. 이는 chorus(영)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단순한 합창이 아니라 시문학으로 이루어진 가사를 노래하는 동시에 연기나 무용을 통해 몸짓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에 가깝다(권혁성, 2007: 6).

본 논문에서 ‘음악’으로 번역하게 될 고대 그리스의 무시케(*mousike*) 개념 역시 이와 유사하다. 오늘날 서양언어에서 ‘음악’을 가리키는 music(영), Musik(독), musique(불) 등의 어원이 되고 있는 이 단어는 원래 뮤즈 여신들(the Muses)의 활동 전반을 나타내는 말로서, 플라톤이 활동하였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음악과 문학이 결합된 형태였다고 한다(Grout, 2009: 34; Halliwell, 2011: 308-309).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음송하는 음유시인들은 시문학을 가사로 삼아, 리라의 반주에 맞추어 운율을 붙여 노래하였고, 이는 오늘날 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시낭송과는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고대 그리스의 음악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무시케(*mousike*)에 해당하며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음악이 아니라 음악과 문학이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된 형태라는 점과, 번역본에서 ‘시인’, ‘poet’으로 지칭하는 부분을 ‘음악가’로 옮긴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플라톤은 26편 이상의 대화편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논문이나 단행본 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현대 학자들과 달랐다. 대화편은 마치 연극대본처럼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등장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저술을 단 한 편도 남기지 않았고, 플라톤은 많은 대화편을 남겼으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저술에 등장하는 법이 없다. 대체로 학자들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탈을 쓰고 등장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대화편의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사상을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플라톤, 2009: 53-54). 한편, 본 논문에서 인용할 또 다른 대화편인 『법률』 편에는 예외적으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고 대신 아테네인이 대화를 주도하며 발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게 되는데, 이는 플라톤이 음악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저술을 남겼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 편을 비롯한 여러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 또는 아테네인의 입을 빌어 플라톤 자신의 음악교육관을 피력한 부분들을 종합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 이상국가 건설의 핵심: 교육

플라톤의 대표적인 대화편인 『국가』는 전체가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논의는 이상국가 건설에 할애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이상국가 건설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 대화편에서 국가의 체제에 관한 논의는 8권에서 잠시 언급되고, 법률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서의 음악교육(2, 3, 10권), 체육교육(3권), 그리고 철학, 수학, 변증술 교육(6, 7권)으로 세분화되어 전체 논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비중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3) 음악교육의 절대우위와 에토스론

가. 이상국가의 교육체계

철학자가 통치하는 이상국가를 제시한 플라톤의 계획에서, 통치자의 교육으로 이성을 함양하는 철학과 수학, 변증술이 주요 과목으로 선정된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이성적인 측면에 건강과 용기를 더해 이성과 기개가 조화를 이루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체육교육을 중시했던 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약 30년간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비롯해 크고 작은 전쟁이 잦았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¹¹⁾ 체력단련은 유사시에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시

11)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아테네와 스파르타간의 전쟁으로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지속되었고, 플라톤은 이 전

대적인 요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과목은 바로 음악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2권 376e-377c).

나. 영혼의 중요성

플라톤이 이상국가 건설의 토대로서 교육을 논의하면서 음악교육에 최우선의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대단히 본질적이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 인간의 형성 자체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체력단련에 앞서 음악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신체의 형성보다, 영혼의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 어리고 연약한 시기의 영혼에는 어떤 것이든 일단 흡수되면 각인되어 버린다고 한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그들이 받아야 할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 자네도 알다시피, 그것은 몸을 위한 체력단련과 혼을 위한 음악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네.

아데이만토스: 그래요.

소크라테스: 우리는 그들에게 체력단련에 앞서 음악교육부터 시켜야 하지 않을까?

아데이만토스: 왜 안 그렇겠어요? [...]

소크라테스: 자네도 알다시피, 어떤 일이든 처음이 가장 중요하네. 특히 어리고 연약한 것에게는 말일세. 그때는 모든 것이 가장 조형되기 쉽고, 누가 어떤 인상을 심어주든 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네. [...] 우리는 아이들의 유모나 어머니들의 손으로 아이들의 몸을 형성하는 것보다 [...] 아이

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기원전 424년에 출생하였다.

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일러줄 것이네.

(『국가』 2권 376e-377c).

여기에서 플라톤은 마치 인간을 형성해나가는 일이 곧 영혼을 형성하는 일과 다름없고, 영혼이 신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영혼이 곧 인간의 자아이며, 신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는 도구라는 그의 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강철웅 외, 2013: 344).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단일체가 아닌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생각하였고, 이 셋은 이성적인 부분,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 신체적 욕구를 표출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국가』 4권 435e-436b).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영혼의 주도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성적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말초적인 욕구만을 좇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플라톤은 이성적인 부분이 주도권을 차지하는 경우를 영혼의 조화, 영혼의 건강이라고 보았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았다(『국가』 4권 444c-e).¹²⁾

다. 에토스론

이어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음악의 파급력을 감안하여,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아무 음악에나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검열은 음악의 내용과 요소, 그리고 악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이것이 곧 이른바 에토스론(Doctrine of *Ethos*), 즉 노랫말, 선법, 리듬, 악기가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에

12) 플라톤의 영혼론 일반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강철웅 외(2013)을 참고.

대한 논의이다.¹³⁾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에토스론이 마치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듯이 별도의 사전설명 없이 소개된다는 점인데, 이것은 플라톤 이전부터 이미 고대 그리스 음악의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했던 피타고라스(기원전 570-497?)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피타고라스의 음악론은 우주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우주에는 화음이 있고 이 화음은 음악적 협화음들의 경우처럼 자연수 1, 2, 3, 4로 이루어지는 비율들을 통해 표현된다고 한다. 이렇게 우주는 질서정연한 수적인 비율로 표현되는 조화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견해였다(김인곤 외, 2005: 711; 민은기 외, 2014: 10). 만일 플라톤이 피타고라스의 견해를 수용하였다면, 좋은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음악이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요지의 에토스론도 이 우주론을 근거로 쉽게 성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플라톤은 세계의 구조와 개인의 영혼의 구조가 크기만 다를 뿐, 서로 유사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국가』 2권 368d-369a).

4) 음악의 내용: 신화

먼저 제시되는 검열의 대상은 당시 음악의 내용, 즉 가사에 해당하는 신화이며, 플라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는 거짓을 배척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신화의 문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13) 고대 그리스의 에토스론 전반에 대해서는 김후량(2003: 6-31), Grout(2009: 35-36), 민경훈 외(2010: 20-21, 51-52), Bowman(2011: 52-76), 민은기 외(2014: 10)를 참고.

가. 거짓 신화의 배척

플라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을 비롯하여 예전부터 노래되던 신화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들려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소크라테스: 음악가들은 전에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지어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지금도 들려주고 있다네. [...] 무엇보다 가장 비난받아 마땅한 점은 그들이 추악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네. [...] 신과 영웅들의 본성을 나쁘게 묘사하는 것 말일세. [...] 우리는 신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싸움질을 한다는 이야기들도, 사실이 아니므로 허용해서는 안 되네. [...] 호메로스가 들려주는 신들의 전투는, 비유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 우리 이상국가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네. 아이들은 비유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고, 어린 나이에 받아들인 견해들은 대개 지울 수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일세.

(『국가』 2권 377d-378e).

플라톤은 ‘거짓’으로 점철된 당시의 신화를 거부하고, ‘올바른’ 종교관에 기초한 신화의 지침을 내린다. 그에 따르면, 신은 선하며, 선의 원인으로만 제시되어야 하고(『국가』 2권 377b-380c), 이리 저리 모습을 바꾸지 않는 불변의 존재이며(『국가』 2권 380d-381d), 어떠한 속임수와도 연루되지 않은 존재로 그려져야만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얻을 수 있는 미덕은 용기, 슬픔에 대한 자제력, 해픈 웃음에 대한 자제력, 진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절제(『국가』 3권 386b-392c)이다. 동시에 그는 거짓된 신화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든 다음, 이런 신화들을 이상국가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맞서 싸워야 하네. 나라가 제대로 통치되려면 우리 이상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주장을 펴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운문으로 쓴 것이든 산문으로 쓴 것이든 노소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게 해야 하네. 그런 주장들은 불경하고, 우리에게 유익 하지도 않으며 서로 모순되네.

(『국가』 2권 380b-c).

나. 신화의 문체

한편, 플라톤은 신화의 문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화의 문체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작가는 자신의 입장에서 3인칭으로 서술하기도 하며, 때로는 등장인물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플라톤은 전자를 단순한 서술로, 후자를 모방을 통한 서술로 정의한다(『국가』 3권 392d). 이해를 돕기 위해 판소리로 예를 들어보자.

눈치 빠른 방자놈이 도련님이 춘향보고 뉘나간 줄 벌써 알고 시치미를
뚝 따고 하는 말이,

“멀 보시고 그리십니까? 소인놈 눈에는 아무 것도 안보입니다.”

(『춘향가』 중에서)

이 예문의 문체를 플라톤의 방식으로 구분하자면 방자의 행동을 서술하는 앞부분은 단순한 서술이며, 방자의 대사 부분은 모방을 통한 서술이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이다. 즉, 음악가는 신화의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훌륭한 사람의 말투를 흉내 내며 노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을 노래해야 할 때도 있다. 위의 예문에서도 소리꾼

은 방자의 대사를 최대한 방자답게, 즉 도련님의 의중을 파악한 채 시치미를 떼는 능청스러운 어조로 노래했을 것이다. 신화를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의 음악가들 역시 영웅들의 대사는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여인들의 대사는 여인답게 노래하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음악가는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등장인물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고, 모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모방의 대상을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들로 제한하려고 한다.

소크라테스: 그들이 모방하기에 적절한 것들, 말하자면 용감하고 절도 있고 경건하고 자유민답고 그 밖에 그와 자질이 비슷한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곧장 모방해야 하네. 그들은 자유민답지 못한 짓이나 그 밖에 다른 수치스러운 태도는 행해서도 안 되고, 그런 짓이나 태도를 모방하는데 능해서도 안 되네. 그런 태도를 모방하다가 실제로 좋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말일세.

(『국가』 3권 395d).

여기에서 플라톤이 지적하는 수치스러운 모방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는 여자, 신들에게 대드는 사람, 일희일비하는 사람, 병든 사람, 분만 중인 여자, 노예, 나쁜 사람 일반, 미친 사람, 파도나 천둥 등 지나치게 큰 자연의 소리(『국가』 3권 395d-396b)등으로 제시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플라톤은 음악의 내용을 이루는 신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용상의 참, 거짓 문제와 문체의 형식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두 요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화가 올바른 내용과 문체를 갖추어야 한다는 하나의 도덕적인 요구

에서 비롯된 것이며,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음악의 요소: 선법과 리듬

지금까지 음악의 내용에 주목하였던 플라톤은 이제 음악의 요소로 주제를 전환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제 다룰 내용은 선법(*harmonia*)과 리듬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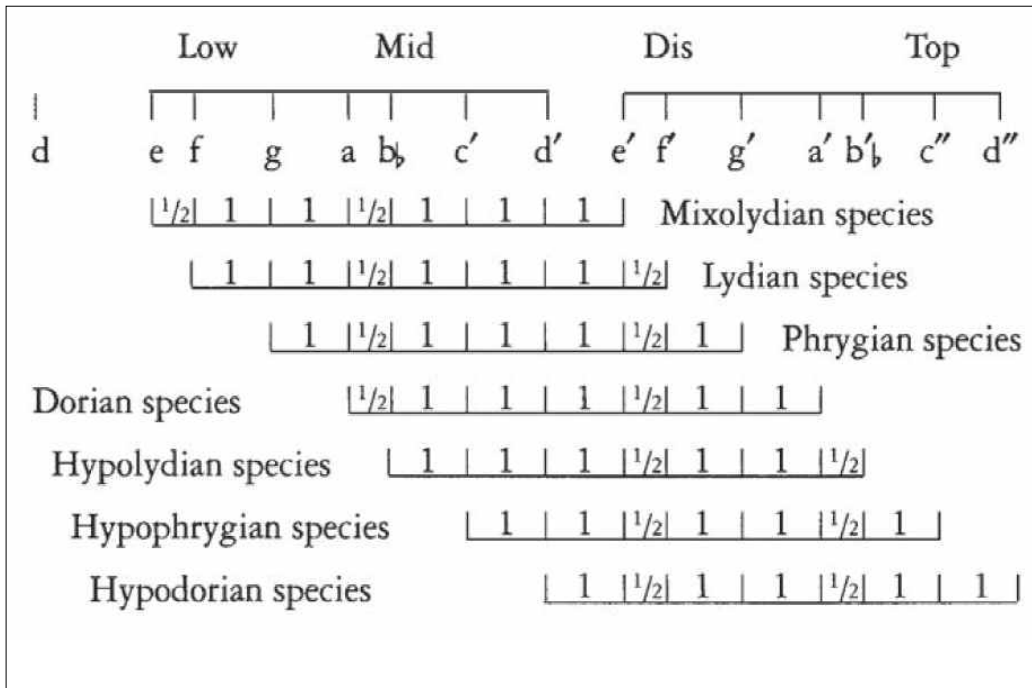
소크라테스: 우리의 음악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말과 이야기에 관한 논의는 이상으로 완결된 것 같네. 우리는 이미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주어야 할지 정했으니 말일세 [...] 그렇다면 노래와 음악의 양식을 논의하는 일이 남았겠지? [...] 자네는 노래가 세 가지 요소, 즉 노랫말과 선법과 리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네.

(『국가』 3권 398b-d).

플라톤은 이제 곧바로 구체적인 선법들을 열거하며 각각의 선법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역설한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음악의 내용인 신화와 음악의 요소인 선법, 리듬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국가』 3권 398d).

14) 하모니아(*harmonia*)는 고대 그리스의 선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테트라코드(*tetrachord*)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7종류의 음계를 뜻한다. 고대 그리스의 선법체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조경아(2010: 73-82), West(1994: 161-221), 리듬체계에 대해서는 Landels(1999: 110-129)를 참고.

<표1> 고대 그리스의 선법체계(Ladnals, 1999: 96)



가. 혼성 리디아 선법/ 고음 리디아 선법: 애도와 비탄

플라톤은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애도와 비탄을 담은 신화를 배제 하자던 앞서의 주장(『국가』 3권 387d)에 이어 애도와 비탄에 걸맞은 선법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 어떤 선법들이 애도에 적합하지? 말해보게. 자네는 음악에 조예가 깊으니까.

글라우콘: 혼성 리디아 선법(Mixolydian)과 고음 리디아 선법(Syntonydian)같은 것들이지요. [...]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겠지? 이것들은 남자들은 물론이고 여자들이 훌륭해지는 데에도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국가』 3권 398d-e)

여기서 지목된 혼성 리디아 선법(Mixolydian)과 고음 리디아 선법(Syntonolydian)은 다음과 같다.

<표2> 혼성 리디아 선법(Mixolydian)과 고음 리디아 선법(Syntonolydian)(Ladnells, 1999: 104-105)

<i>Syntonolydian</i>	$\frac{1}{4}$	$\frac{1}{4}$	2		$1\frac{1}{2}$			
<i>Mixolydian</i>	$\frac{1}{4}$	$\frac{1}{4}$	1	1	$\frac{1}{4}$	$\frac{1}{4}$	3	

나. 이오니아 선법/ 리디아 선법: 유약과 나태

한편, 플라톤은 영혼을 유약하고 나태하게 하는 선법 역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오니아 선법과 리디아 선법을 예로 든다.

소크라테스: 선법 가운데 유약해지게 하거나 애주가에 적합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글라우콘: 느슨하다고 불리는 몇몇 이오니아 선법(Ionian)과 리디아 선법(Lydian)이지요.

소크라테스: 여보게, 이런 것들이 전사들을 훈련시키는 데 쓸모가 있을까?

글라우콘: 전혀 쓸모없지요.

(『국가』 3권 398e-399a)

이오니아 선법(Ionian)과 리디아 선법(Lydian)은 다음과 같다.

<표3> 이오니아 선법(Ionian)과 리디아 선법(Lydian)
(Ladnells, 1999: 103-104)

<i>Ionian</i>	$\frac{1}{4}$	$\frac{1}{4}$	2	$1\frac{1}{2}$	1		
<i>Lydian</i>	$\frac{1}{4}$	2	1	$\frac{1}{4}$	$\frac{1}{4}$	2	$\frac{1}{4}$

다. 도리아 선법/ 프리지아 선법: 절제와 용기

플라톤은 지금까지 예를 든 선법들이 인간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절제와 용기의 덕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선법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도리아 선법과 프리지아 선법이다.

소크라테스: 이 두 선법은 나를 위해 남겨두게나. [...] 절제 있고 용감한 사람들의 음조를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선법들 말일세.

글라우콘: 선생님께서 남겨두라고 요구하시는 두 선법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도리아 선법(Dorian)과 프리지아 선법(Phrygian)이에요.

(『국가』 3권 399a-c)

도리아 선법(Dorian)과 프리지아 선법(Phrygian)은 다음과 같다.

<표4> 도리아 선법(Dorian)과 프리지아 선법(Phrygian)

(Ladnells, 1999: 104)

<i>Dorian</i>	1	1/4 1/4	2	1	1/4 1/4	2	
<i>Phrygian</i>	1	1/4 1/4	2	1	1/4 1/4	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도리아 선법(Dorian)과 프리지아 선법(Phrygian)은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 역시 이 두 선법을 한 묶음으로 거론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둘이 서로 매우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Ladnells, 1999: 104).

라. 좋은 리듬과 나쁜 리듬

선법에 관한 논의를 마친 후, 플라톤은 리듬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그는 선법에 적용했던 기준을 리듬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

소크라테스: 선법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리듬이 될 텐데 [...] 우리는 어떤 것이 절제 있고 용감한 사람의 삶에 맞는 리듬인지를 알아낸 다음, 리듬과 멜로디를 그런 사람의 말에 맞춰야지, 그의 말을 리듬과 멜로디에 맞춰서는 안 될 것이네.

(『국가』 3권 399e-400a)

그러나 플라톤은 리듬에 관한 자세한 문제는 다몬¹⁵⁾이라는 전문가에

게 맡기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리듬과 나쁜 리듬이 구별된다는 점이며, 각각이 유도해내는 결과 역시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소크라테스: 아무튼 이 문제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다몬에게 맡기기로 하세. 이를 자세히 구분하려면 긴 논의가 필요할 테니 말일세. [...] 하지만 자네는 좋은 리듬에는 우아함이, 나쁜 리듬에는 추함이 따른다는 것쯤은 당장이라도 구분할 수 있겠지?

글라우콘: 물론이지요.

(『국가』 3권 400c)

6) 음악의 표현수단: 악기

이제 선법과 리듬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상, 다양한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불필요해진다. 따라서 플라톤은 당시의 악기들 중 삼각 하프(*trigonon*)나 보통 하프(*pektis*) 등 현이 많고 여러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국가』 3권 399c).¹⁵⁾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중 삼각 하프는 작은 삼각형 하프로 허벅지에 끼워 연주하였다고 하며(Strunk 2002: 11, n. 11), 보통 하프는 리디아에서 그리스로 유입된 하프로 많은 줄이 있어 전조가 용이하였다고 전해진다(West, 1994: 71; Strunk, 2002: 11, n. 11).

15) 다몬은 기원전 5세기 말에 아테네에서 활동한 음악교사로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으로 음악과 인간 영혼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인물이며 플라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후량, 2003: 23-24).

16) 악기의 명칭은 천병희의 번역을 따랐다. 한편, 영문판 Shorey(Plato: 1969)는 이 둘을 각각 *triangle*과 *harp*로 옮겼고, 박종현(1997)은 이 둘을 각각 ‘삼각 현악기’와 ‘펙티스’로 옮겼다.

또한, 음역이 넓고 음계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피치의 미묘한 변화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Strunk 2002: 12, n. 12) 피리(*Aulos*) 역시 다양한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악기로 지목되어 배제된다(『국가』 3권 399d). 이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사용될 악기는 리라(*lyre*)와 기타라(*Kithara*) 정도만이 남게 된다(『국가』 3권 399d).¹⁷⁾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에서 지목된 해로운 악기들을 제작하는 장인들까지도 이상국가에서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한다(『국가』 3권 399c-d). 플라톤은 하프와 피리를 만드는 악기장인들이 남아있는 이상 악기의 생산 가능성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해로운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악기장인들을 추방함으로써 이상국가의 시민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7) 음악교육의 목적: 재확인과 요약

플라톤은 음악교육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음악교육의 목적을 재확인한다.

소크라테스: 글라우콘, 음악 교육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첫째, 리듬과 선법은 그 무엇보다 더 깊숙이 영혼의 내면으로 침투하며 우아함을 가져다줌으로써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네. 그것들은 누가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우아하게 만들고, 누가 나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그를 그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만드네. 둘째, 이 분야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예술작품이나 자연의 결점들을

17) 리라, 기타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Grout(2009: 31-32)를 참고.

가장 분명히 알아보게 될 것이네. 그러면 그는 그것들의 추함이 역겨워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고 반길 것이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영혼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신도 아름답고 훌륭해 질 것이네 [...].

글라우콘: 내가 보기에, 그게 바로 음악 교육의 목적인 것 같아요.

(『국가』 3권 401d-402a)

위에서 플라톤이 정리한 음악교육의 두 가지 목적은 결국 인간의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양시키는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이상국가 건설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분야는 교육이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은 음악교육이다.

나. 이는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는 아무 음악이나 무분별하게 교육할 수 없으며,

라. 음악의 내용과 요소, 악기의 종류에 따라 엄격한 검열을 실시해야한다. 즉,

- 노랫말은 거짓을 전해서는 안 되며 문체 역시 선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선법과 리듬은 절제와 용기의 덕을 고양하는 종류만 허용한다.

- 따라서 다양한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도 배제해야 한다.

마. 이 검열은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보기 위한 것이며,

바. 이는 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에서 살펴 본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토대로, 그의 이상국가에서 실시될 음악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 가. 어린이들이 훌륭한 영혼을 갖추도록 가장 먼저 음악교육을 실시 하되,
- 나. 노랫말이 되는 신화는 진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용기, 슬픔에 대한 자제력, 험한 웃음에 대한 자제력, 진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절제력을 함양한다.
- 다. 신화의 문체는 단순한 서술이 권장되나, 모방적인 문체를 사용할 경우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들만을 모방의 대상으로 제한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덕을 모방하도록 유도한다.
- 라. 선법은 도리아 선법과 프리지아 선법에 한해 사용하고, 이에 어울리는 좋은 리듬을 붙여 어린이들이 용기와 절제를 함양하도록 한다.
- 마. 악기는 리라와 기타라로 한정한다.

물론 플라톤의 강력한 도덕적 요구로 인해 음악의 내용과 요소, 악기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국가에서 음악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한 개별 과목의 담당자가 아닌 인간의 영혼 형성을 책임지는 중요성이 부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음악가의 지위와 딜레마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위의 논의, 즉 『국가』 2, 3권을 중심으로 한 에토스론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한층 더 강경한 주장이 담긴 『국가』 10권, 그리고 『법률』 7권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국가』 2, 3권에서 음악에 대한 선별적인 규제를 주장하였던 플라톤은 『국가』 10권에서는 모든 음악가들을 이상국가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 7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열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게 된 문맥을 분석한 후, 이 주장으로 인해 비롯되는 딜레마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음악가 추방론: 『국가』 10권 분석

우리가 사용하는 ‘예술’이라는 말은 영어 ‘art’의 번역어이며, 이 ‘art’는 라틴어의 ‘아르스 ars’에서, 그리고 이 ‘아르스 ars’는 그리스어 ‘테크네 techne’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테크네 techne’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등 실제로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강철웅 외, 2013: 503).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축가는 집이 무엇인지 알고 집을 짓고, 목수는 침대가 무엇인지 알고 침대를 만든다. 그렇다면 화가나 음악가에게도 이러한 지식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국가』 10권 초입에서 플라톤이 던지는 질문이며, 플라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유는 예술가가 자기 작품에 구현되는 대상에 대해 본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 모방 개념의 차이

용어사용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은 ‘모방’이라는 개념이다. 앞서 플라톤은 『국가』 2, 3권에서 이 ‘모방’의 개념을 노랫말의 서술 형식에 한해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이는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의 말투와 표정 등을 연주자가 흉내 낸다는 의미에서의 모방 행위였다. 그러나 이제 『국가』 10권에서 사용될 ‘모방’의 개념은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본으로 삼고 이를 통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행위 자체를 뜻한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는 이유는, 이것이 플라톤이 음악가를 비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 예술가: 모상의 모방자

플라톤은 침대를 예로 들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침대가 있다고 말한다. 즉, 신이 만들어낸 이데아로서의 침대가 첫 번째 것이다. 그리고, 이 침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목수들이 만들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침대는 두 번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침대를 보고 화가가 그린 침대가 세 번째 것이다(『국가』 10권 597b). 다시 말해, 이데아를 의식하고 목수가 제작한 침대(1차 모방)를 보고 그림을 그린 화가의 작품(2차 모방)은 진리, 즉 침대의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으며, 따라서 모방의 모방이라는 것이 플라톤의 설명이다.

게다가 화가는 침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만을 그리기 때문에 침대를 정확하게 복제해내지도 못한

다. 따라서 화가는 침대에 관한 한 침대를 만든 목수보다 지식이 없지만, 그의 교묘한 그림 솜씨를 통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플라톤은 지적한다(『국가』 10권 596b-598d).

그러나 이것은 음악가들 전체를 비난하기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국가』 10권 전반부의 주제가 화가에 대한 공격이 아닌, 음악가에 대한 공격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 음악가: 모상의 모방자로서의 예술가

곧이어 플라톤은 위에서 화가들을 공격한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음악가들을 겨눈다.

소크라테스: 다음에는 비극시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호메로스를 고찰해야겠지? [...] 그러면 호메로스 시대의 어떤 전쟁이 그의 지휘와 조언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기록은 있는가?

글라우콘: 그런 전쟁은 없어요.

소크라테스: 그럼 호메로스가 [...] 기술이나 그 밖의 활동분야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발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는가?

글라우콘: 그런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아요.

[...]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호메로스를 비롯하여 모든 음악가들은 미덕이나 그 밖에 그들이 작시하는 것에 관해서 그 모상의 모방자(imitators of images)에 불과할 뿐,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해야겠지? [...] 음악가는 모방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개개의 기술을 단어와 어구로 채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네 [...] 모방자는 자기가 모방하는 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지식도 올바른 의견도 갖지

못할 것이네.

(『국가』 10권 598c-602a)

플라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화가는 침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두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지만 침대와 구두를 그려낼 수 있듯이, 음악가 역시 자신이 노래하는 시의 내용에 대해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음악가 역시 화가와 마찬가지로 진리(이데아)에서 두 단계 떨어진, 모상의 모방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화가는 모상을 모방하는 자이며 음악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논리이다. 즉, 훌륭한 이데아(진리)가 있고, 훌륭한 사람은 이것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음악가는 이런 사람의 영웅담을 노래하는데, 음악가가 아무리 뛰어난 솜씨로 훌륭한 사람들의 삶과 행위를 노래한다 하더라도 음악가 본인은 도저히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의 삶의 깊이와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가 아킬레우스나 오딧세우스의 영웅적인 행위를 아무리 근사하게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잘 만든 사물에 대해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만드는 법을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실용적인 기술에도 공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음악가 추방

음악가의 행위를 모방으로 규정한 플라톤은 이제 모방의 악영향에 대해 역설하고 이상국가에서 음악가를 추방하자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우리 안의 화를 잘 내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방이 가능하겠지만, 현명하고 침착한 성격은 언제나 태도가 일관되므로 모방하기가 쉽지도 않거니와 모방된다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네 [...] 그는 진리에 견주어 열등한 것을 만들어내며, 영혼의 열등한 부분과 교제하고 가장 훌륭한 부분과 교제하지 않는다네. 그러니 음악가를 우리의 이상국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네. 그는 영혼의 열등한 부분을 깨워 가꾸어주고 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성적인 부분을 훼손하기 때문이네.

(『국가』 10권 604e-605b)

플라톤이 음악가들을 이상국가에서 배척하는 이유는 첫째, 이들의 행위가 모방적이고 둘째, 이러한 모방이 영혼의 열등한 부분인 감정과 욕구를 자극하고 부추김으로써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인 이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에서 언급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플라톤은 음악가가 노래하는 비탄이나 근심, 또는 저속한 농담, 애욕, 고통, 즐거움 등 인간의 희노애락 전반에 관한 감정적인 욕구를 영혼의 열등한 부분의 욕구로 바라보며, 이러한 음악에 노출되다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이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국가』 10권 605c-606d). 플라톤이 바라보는 음악가는 진리(이데아)와 멀리 떨어진 모방행위에 종사하는 자이며, 따라서 음악가의 행위에는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적다. 오히려 이성으로 억누르고 다스려야 할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부추김으로써 영혼에 해를 입히는 사람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톤은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 즉 이성이 영혼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는 상태를 영혼의 건강과 인간의 행복이라고 여겼

으며, 이러한 그에게 비이성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음악가들의 존재는 인간을 사악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다(『국가』 10권 606d).

또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플라톤은 ‘모든’ 음악가들이 모상을 모방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국가』 10권 600e). 그런데 이 모방행위가 인간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상, 플라톤이 추방하고자 했던 대상은 모든 음악가인 것이다.

2) 음악가 검열론: 『법률』 7권 분석

앞서 『국가』 편에서 음악에 대한 검열을 주장했던 플라톤은 후기 작품인 『법률』 편에서도 다시 한 번 검열을 주장한다.¹⁸⁾ 그는 『법률』 편에서 다시 한 번 이상국가의 체제를 수립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에토스론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아테네인: 즐거움이나 즐겁지 않음과 관련해서는 어떤 음악도 다른 음악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열등하지 않습니다. 차이라면, 한쪽의 음악적 환경은 좋은 영향을, 다른 쪽의 음악적 환경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뿐입니다.

(『법률』 7권 802d)

그러나 그가 태도를 달리하는 듯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음악가들에 대

18) 플라톤의 중기 대화편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기원전 380년대, 또는 370년대에 걸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기 대화편으로 분류되는 『법률』은 이보다 30여년 후에 저술된 그의 최종작으로 추정된다. 플라톤(2016: 7)을 참고.

한 자세이다. 『국가』 10권에서 음악가들을 일괄적으로 추방하자며 강경한 주장을 펼쳤던 그가, 이번에는 추방대신 검열을 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테네인: 우리는 음악과 춤 중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이상국가의 정치체제에 적합하고 알맞은 것을 주저 없이 골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50세 이상 된 심사관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작품들 중에서 무엇이 적합하고, 무엇이 결함있거나 전혀 쓸모없는지 결정하는데, 후자는 완전히 버리고 전자는 음악가의 조언을 구해 수정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음악가들의 시적 재능은 이용하되,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취미와 기호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심사관들은 입법자의 의도를 해석하여 춤과 노래와 합창가무 일반을 입법자의 의도에 맞게 정비해야 합니다.

(『법률』 7권 802a-c)

이어, 그는 당시 그리스의 종합예술이었던 비극을 창작하는 음악가들을 가장 수준 높은 음악가들의 대표로 상정하고 그들을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아테네인: 여러분이 무대를 설치하고 우리보다 목청 좋은 배우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허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 여러분이 우리와 상반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허용한다면 사실 우리 자신도, 국가 전체도 완전히 실성한 것이겠지요. 여러분이 작곡한 것이 적합한 것인지, 공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국가에서 결정하기도 전에 한다면 말입니다. [...] 만약 여러분이 말한 것이 우리가 말한 것과 같거

나 더 나은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합창가무단(chorus)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친구들이여,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¹⁹⁾.(『법률』 7권 817c-d)

『국가』 10권에서 음악가를 겨누는 그의 어조는 더 없이 강경한 것이었다. 음악가는 본질적으로 진리와 동떨어진 모방행위의 종사자이며, 따라서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법률』 7권에서 플라톤의 어조는 사뭇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음악가들의 입장에서는 검열이 반갑지만은 않겠으나, 전면적인 추방조치라는 결과는 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해롭고 위험하기만 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나마 음악가의 시적재능이 인정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추방의 대상에서 조건부 수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음악가의 위상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19) 고대 그리스에서 비극이나 희극 경연대회에 필요한 합창가무단(chorus)의 의상 및 훈련비용은 국가가 지정하는 부유한 시민이 지불하였다. 따라서 합창가무단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연 자체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플라톤; 2013: 139 주석 50번).

Ⅲ. 딜레마에 관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1. 세 가지 딜레마

이상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단일하고 일관된 주장으로 정리하여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며, 최소한 세 가지의 딜레마를 만나게 된다. 이 단락에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종합하며 부딪히게 되는 세 가지의 딜레마를 정리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1) 음악은 누가 교육하는가?

우리는 『국가』 2, 3권에서 음악교육의 절대적 가치를 역설하던 플라톤의 주장을 기억한다. 그러나 『국가』 편 전체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10권에 이르러서는 음악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악가들이 모두 배척되고 만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는 현대와는 달리 음악가와 음악교사가 직업적으로 분리된 사회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에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 지점에서 부딪히는 첫 번째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음악교육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모든 음악가들이 추방되고 나면 이러한 음악은 누가 교육하는가?

2) 음악은 누가 만들고 연주하는가?

모든 음악가들을 추방하자는 플라톤의 주장은 자칫하면 음악 자체를 추방하자는 주장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플라톤의 주장은 모든 음악가들을 추방하되, 음악 중에서는 모방적인 것을 허락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음악 중에는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에 대한 송가 등 이상국가에서 받아들여야 할 훌륭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확실히 우리의 이상국가는 여러 가지 다른 점에서도 제대로 건설되었지만, 음악에 관해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고 말하고 싶네. [...] 음악 중에서도 모방적인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일세.
(『국가』 10권 595a-b)

소크라테스: 그러나 자네는 음악 가운데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들에 대한 송가만이 이상국가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네.
(『국가』 10권 607a)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에 대한 송가 등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허용하는 음악, 즉 모방적이지 않은 음악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러한 음악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런 음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음악가가 만든 음악은 아니어야 한다. 플라톤은 『국가』 10권에서 음악가가 본질적으로 모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역시 모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부딪히는 두 번째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에는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에 대한 송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은 누가 만들고 연주하는가?

3) 추방인가, 검열인가?

세 번째 딜레마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살펴 본 『법률』 편 7권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그는 모든 음악가를 추방하자던 『국가』 10권의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음악가들에 대해서 엄격한 검열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부딪히는 세 번째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음악가를 추방하자는 『국가』 10권의 주장과, 추방대신 검열을 실시하자는 『법률』 7권의 주장은 양립 가능한 것인가?

2. 딜레마의 해명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딜레마를 도출하였다.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이 딜레마 앞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논의들을 펼쳤으나, 해석의 어려움은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김남두(2007: 73-75)가 첫 번째 딜레마와 두 번째 딜레마를 관찰한 후 이는 해결할 수 없는 불일치라고 주장한 것이 좋은 예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국가』 10권의 플라톤의 강경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으며, 『국가』 편 내부의 다른 논의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서승원 1992: 61-65). 그렇다면,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비일관된 것인가?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첫째,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비일관적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음악 교육사에 오래도록 지대한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둘째,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충하는 주장들의 조합이라면, 이 주장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며, 설령 그러한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그 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 문제 앞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전제와 가설을 세운 다음, 위의 세 딜레마를 최대한 일관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가. 플라톤에게 음악은 독립된 개별교과가 아니며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계발하는 철학훈련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이성과 지식의 문제에 깊이 연관된다.

나. 따라서 위의 세 가지 딜레마 역시 이러한 플라톤의 지식관과 연계하여 고찰해야 한다.

다. 플라톤의 지식관에 근거하여 첫 번째 딜레마를 열쇠로 세 가지 딜레마 전체에 대해 해명할 수 있다.

라.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다양한 대화편의 다양한 문맥에 산재하여 있으며, 때로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1) 플라톤과 전문가주의

플라톤의 또 다른 대화편 『크리톤』²⁰⁾에서는 사형을 언도받고 수감 중인 소크라테스에게 친구 크리톤이 와서 탈옥을 권유한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그렇게 실행해야 할지(=탈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찰해야 하네. 나는 언제나 추론해 보고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이는 원칙 이외에는 내게 속해 있는 다른 어떤 것에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네.

(『크리톤』 46a)

소크라테스는 이성이 지배하는 영혼의 상태를 추구했던 철학자답게, 탈옥이 아무리 친한 친구의 권유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쳐 가장 좋은 것으로 판명되는 원칙, 즉 이성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지론을 펼치며 다음과 같이 운동선수의 예를 든다. 운동선수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이요법을 행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무시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른다면 그들이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할 지라도 몸을 망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판단보다 전문가 한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소크라테스: 체육인은 모든 사람의 칭찬과 비난과 판단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오직 의사나 체육교사인 한 사람의 판단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20) 『크리톤』은 플라톤의 짧은 대화편이다.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유하고, 이에 소크라테스는 정의와 법의 관점에서 논박을 펼친다.

크리톤: 오직 한 사람의 판단이지.

[...]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는 오히려 관리자이며 전문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하고, 운동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네. [...] 그런데 만일 그가 그 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의 판단과 칭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전혀 전문 지식을 갖지 못한 다수의 판단과 칭찬을 존중한다면, 그는 나쁜 일을 겪지 않겠는가? [...] 그 나쁜 것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크리톤: 분명 몸에 영향을 미치네. 몸을 망치니까.

(『크리톤』 47b-c)

플라톤은 전문적인 지식을 따르는 일이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설령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도덕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판단이다. 의사의 충고를 무시할 때 몸을 망치게 되듯이, 이 판단을 무시하면 영혼이 파괴된다. 그리고 이것은 몸을 망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으로 묘사된다. 플라톤에게 자아란 몸이 아닌 영혼이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그러면 우리가 형편없고 파괴된 몸을 지낼 경우, 우리의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크리톤: 결코 그렇지 않네.

소크라테스: 그러면 영혼이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영혼이 몸보다 하찮다고 여기는가? [...]

크리톤: 결코 그렇지 않네.

소크라테스: 그럼 더 귀한가?

크리톤: 훨씬 더 귀하네.

(『크리톤』 47e-48a)

플라톤은 이러한 논변을 통해 우리에게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방면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
달한다. 침대나 의자에 관한 문제라면 목수의 조언을 따르고, 운동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체육
지도자와 의사의 조언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문제,
즉 영혼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조언을 따라야 하느냐는 문
제가 도출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서 읽을 수 있다.²¹⁾

소크라테스: 여러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 봅시다. “소크라테스,
당신을 석방하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철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
고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계속 이 일을 하다 잡힌다면,
그 때는 사형당할 겁니다.” 자, 내가 말했던 대로 이런 조건을 달고 여
러분이 나를 풀어준다면, 나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신에
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 쉬는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서는 철학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또 매번 내가
여러 분 중 누구와 만나든 그에게 명료하게 보여 주는 일을 멈추지 않
을 겁니다. 내가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대로 이렇게 말하면서요, ‘당신은
[...] 재산을 최대한 늘리는 일과 명성, 명예에는 마음 쓰면서도, 현명함
과 진실, 그리고 영혼이 최대한 훌륭하게 되는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라고 말입니다.

21)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기원전 399년 아테네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
소크라테스가 행한 자기 변호 연설을 재현하는 형식으로 구성한 플라톤의
작품이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29c-e)

플라톤의 철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 그 자체이다 (강철웅 외, 2013: 343). 실제로 그는 영혼을 돌보는 일에 평생 매진하였던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상적인 철학자의 본보기로 세워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위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학하는 일을 신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게 복종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철학하는 일, 즉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고 주장한다.

2) 지식이 결여된 음악가: 『이온』 분석

위에서 살펴본 전문가주의에 따른다면, 우리는 음악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 이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때 음악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음악가에게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또 다른 대화편 『이온』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온』은 음유시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음악가 이온과 소크라테스가 나누는 대화로 구성된다. 이온이 하는 일이란 관객들 앞에서 호메로스의 시를 리라나 기타라의 반주에 맞추어 아름답게 암송하고 연기하는 일이며 당시 그리스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온』 541b). 소크라테스는 이온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음송만을 잘 하는지, 다른 시인의 음악도 잘 음송할 수 있는지를 묻는데, 이온은 호메로스만을 잘 한다고 대답한다(『이온』 531a).

소크라테스: 그대는 호메로스에만 능하시오, 아니면 헤시오도스와 아르킬로코스에도 능하시오?

이온: 아니, 호메로스에만 능하답니다. 그 정도면 나한테는 충분한 것 같아서요.

(『이온』 531a)

그리고 이 지점에서 플라톤은 음악가의 전문지식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만일, 이온의 재능이 전문지식에 기반한 기술이라면 이온은 위대한 음악가의 작품을 청중에게 전달해주는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이온』 530c). 그런데 전투, 항해술, 의술 등 호메로스가 다루는 동일한 주제를 다른 음악가가 다루는 경우도 많고, 음유시인은 이 모든 경우를 모두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온은 호메로스의 경우에만 정통할 뿐 다른 음악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무지하므로 이온의 재능은 전문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취지이다.

소크라테스: 그대가 호메로스에 관해 전문 기술과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with art and knowledge)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니까요. 만약 그대가 전문 기술에 근거해서 그럴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모든 음악가들에 관해서도 능히 할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음악은 하나의 전체이기 때문이요. 그렇지 않나요?(since there is an art of poetry, I take it, as a whole, is there not?)

이온: 네 그렇지요.

(『이온』 532c)

게다가, 이온은 호메로스의 시에 거론되는 전투, 항해술, 의술 등의

개별적인 기술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비유하자면 이는 마치 드라마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배우가 실제 법률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앞서 플라톤이 음악가를 본질적으로 모상의 모방자, 진리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모방자라고 규정했던 것(『국가』 10권 598c-602a)을 기억한다. 이 주장은 『이온』 편의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온과 같은 음악가의 능력이 지식에 기반한 기술이 아니라면, 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플라톤은 이를 신들린 상태(divine inspiration)로 규정한다. 즉, 뮤즈 여신의 힘이 작곡가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연주자에게 옮겨져 최종적으로 관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그대가 호메로스에 관해 말을 잘하는 것은 그대가 전문 기술을 습득해서가 아니라, [...] 어떤 신적인 힘(a divine power)이 그대를 움직이기 때문이오. [...] 뮤즈 여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몸소 영감을 불어 넣으면, 그때는 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these inspired persons)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지요.

(『이온』 533d-e)

마치 접신한 무당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듯이, 신들린 상태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는 자신이 노래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다.

소크라테스: 신은 음악가들에게서 이성을 빼앗고 그들을 예언자나 신통한 점쟁이들처럼 종으로 부리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이성이 없는 만큼,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신이며, 신이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도록 말이오.

(『이온』 534c-d)

따라서 음악가의 능력은 지식과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이 결여된 것이다.

3) 철학자의 입장에서 본 음악교사

지금까지 우리는 『크리톤』 편을 분석하며 판단의 주체는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몫이라는 플라톤의 전문가주의를 확인하였고, 『이온』 편을 분석하며 음악가는 지식이 결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음악교육 역시 이 분야에 정통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나, 우리가 통념상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기대하는 음악가들의 전문성은 플라톤에 의해 완전히 부정되었기 때문에 음악교육은 음악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딜레마, 즉 모든 음악가들이 추방되고 나면 음악은 누가 교육하는 문제였다. 필자는 이 단락에서 이것이 철학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논증할 것이다.

가. 음악교육의 목적

플라톤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영혼을 조화롭게 형성하는 것이며, 이때 영혼의 조화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감정, 욕구 중에서 이성이 주도권을 쥐고 나머지 두 부분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한다. 플라톤이 감정과 욕구를 자극하는 노랫말과 선법, 리듬을 배척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이 음악가들을 이상국가에서 배척하는 이유도 이러한 음악교육의 목적을 염두에 둘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들의 행위는 모방적이며, 이러한 모방이 영혼의 열등한 부분인 감정을 자극하고 부추김으로써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인 이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에게 음악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의 조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앞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학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나. 음악에 대한 지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선보였다. 그런데 이 대화의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소크라테스는 이데아, 곧 진리를 포착하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자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의 지식을 제시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대화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잘 모르며, 경험이 없다고 말하면서 무지로 일관하고, 자신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대답하도록 유도한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식을 선보이지만 소크라테스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상대의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문답이 반복되며 결국 상대방도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음이 드러난 상태에서 대화편이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철웅 외, 2013: 290-293).

그러나 언뜻 허무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대화의 구조는 인간이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데아, 즉 참된 진리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지식이 사실 결함이 많은 것이라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된다. 당장 정답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더 나은 지식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게 되며, 이것이 곧 철학자의 삶이 된다(플라톤, 2014a: 20-22). 따라서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상적인 철학자는 자신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고, 힘들게 얻은 지식조차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성찰하는 것을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삼았다(플라톤, 2014a: 31).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플라톤이 음악에 대한 지식을 확신에 찬 어조로 선보이는 『국가』 2, 3권의 장면은 이전의 대화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보여진다. 여기서 그는 노랫말과 선법, 리듬, 악기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자신의 지식을 선보이고 주저 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문제시되는 노랫말들은 무려 33회에 걸쳐 직접 암송하여 인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플라톤이 젊은 시절 비극작가가 되고자 하였고, 자신의 작품들을 논문 형태가 아닌 비극과 유사한 극시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는 점(강철웅 외, 2013: 513, 송유례: 2014, 53)은 음악에 대한 그의 지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음악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온』에서는 음악가에게 지식이 없음을 밝히고, 『국가』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철학자가 음악과 음악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아닌 철학자가 음악교육의 전문가라는 것을,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을 담당해야 할 주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 철학자 음악가

『법률』 7권에서 플라톤은, 음악가들이 이상국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이들을 엄격하게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자신을 비롯한 철학자들을 이상국가의 음악가들로 소개하고 있다.

아테네인: 진지한 음악가들이라고 불리는 비극작가들은 어떨까요? 그들 중 몇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도시와 나라를 방문해도 됩니까, 우리의 작품을 가져가도 됩니까?” 이 영감 받은 자들에게(to these inspired persons)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옳은 대답이 될까요? 내 생각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비극작가들이며,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창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정치체제 전체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삶을 모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가장 참된 비극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장르의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이며, 가장 훌륭한 드라마의 예술가이자 배우로서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법률』 7권 817a-b)

이로써 『국가』에서의 암시적인 주장은, 『법률』로 오면서 명시적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국가』에서 철학자가 음악과 음악교육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이며, 음악교육을 담당해야 할 주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밝힌 반면, 『법률』에 와서는 철학자가 스스로를 음악가라고 선언하며 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변치 않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존의 음악가들을 지식을 갖춘 집단

이 아닌 신들의 영감을 받은 자들(the inspired persons)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플라톤의 초기 작품인 『이온』에서 시작되어 중기 작품인 『국가』, 그리고 후기 작품인 『법률』까지 플라톤 사상 전체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주장으로서 음악가들의 지위를 부정하려는 플라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4) 딜레마의 해명

이상에서 우리는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첫 번째 딜레마를 분석하며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은 철학자가 담당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플라톤의 음악교육의 목적이 이성이 주도하는 조화로운 영혼의 형성인 이상, 이는 영혼을 돌보는 전문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플라톤 사상에서 그러한 전문가는 바로 철학자이다. 한편 플라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음악가는 신적인 영감으로 활동하는 사람일 뿐 지식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철학자가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상국가의 음악가임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우리는 플라톤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의 주체가 철학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나머지 두 가지의 딜레마도 해결해 볼 수 있다.

누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가? 라는 두 번째 딜레마는, 음악가들은 모두 모방적이지만, 음악 중에는 모방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은 모방적이지 않은 음악, 즉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에 대한 송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음악가는 모상의 모방자이므로 이러한 음악을 누가 만들고 연주하느냐는 딜레마가 도출된 것이었다. 『국가』 2, 3권에서 철학자가 음악의 전문가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밝힌 플라톤은 위에서 인용한 『법률』 7권에서 스스로 음악가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본받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한다(『법률』 7권 817b). 이것이 바로 이상국가의 음악이며, 결국 이러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상국가의 음악가인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딜레마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음악가를 추방하자는 『국가』 10권의 주장과, 음악가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자는 『법률』 7권의 주장이 양립 가능하냐는 문제였다.

소크라테스: 그러니 음악가를 우리의 이상국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네.

(『국가』 10권 605b)

아테네인: 먼저 우리의 노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래를 우리 관리에게 제시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말한 것이 우리가 말한 것과 같거나 더 나은 것으로 밝혀지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합창가무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친구들이여,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법률』 7권 817d)

『국가』 10권의 주장에는 음악가들을 이상국가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반면, 『법률』 7권에는 검열을 통해 선별적으로 음악가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금은 더 누그러진 태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주장은 실제 결과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 7권에서 철학자들은 음악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위에서 인

용한 바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삶을 본받은 것들이며, 철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음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검열의 기준이 된다. 즉, 음악가들이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음악과 같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면 음악가들을 이상국가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그려진 이상국가에서나 『법률』에서 그려진 이상국가에서나 사람들이 향유하고 교육받는 음악은 철학자들이 만든 것, 또는 철학자들의 검열을 통과한 음악가들이 만든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음악을 향유하고 교육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법률』에서도 플라톤은 음악가들을 여전히 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철학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도, 『법률』에서도 음악가들을 판단하는 기준과 권력은 언제나 철학자들의 몫이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음악가들은 이상국가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이다.

5)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재구성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동안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였다기보다는, 대체로 에토스론을 위주로 부분적으로만 취급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의 음악교육사상 전반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인다.

플라톤은 『국가』 2, 3권에서 에토스론에 입각하여 노랫말, 선법,

리듬, 악기 등에 각각 세부적인 규제사항들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플라톤의 음악교육에는 신들에 대한 찬가, 훌륭한 사람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 도리아 선법과 프리지아 선법, 우아하고 단순한 리듬, 리라와 키타라만이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음악교육사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몇 가지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국가』 10권에서 음악가들을 추방하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만, 『법률』 7권에서는 음악가들에게 검열을 실시하여 그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음악교육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자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상국가의 음악은 누가 교육하는가, 누가 이러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가, 음악가들은 추방의 대상인가 검열의 대상인가를 묻는 세 가지 딜레마가 제기되었고, 우리는 위의 분석을 통해 철학가가 음악교육의 주체이며,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현대음악교육에 수정 없이 적용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플라톤에게 음악은 독립된 개별교과라기 보다는 차라리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발하는 철학훈련의 첫 단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감수성의 계발이 아닌 이성과 지식의 문제에 깊이 연관된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왜 감정과 이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고 미적 감수성은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이성적인 활동만을 고양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일까? 왜 그는 음악을 굳이 철학에 종속시키려고 하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플라톤의 시대는 30여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과 가치관이 무너진 상황에서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가 만연하

던 때였다. 플라톤은 해체되어 가는 공동체와 문화, 인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이데아론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도덕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확보하려고 하였다(윤영돈, 1998: 8). 이 과정에서 플라톤은 감정과 욕구가 아닌 이성만이 인간을 참된 지식으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하였으며,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를 영혼의 조화와 행복이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첫 단계에서부터 선별된 음악만을 교육하여 감정과 욕구를 억누르고 이성만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3. 교육적 시사점

이 장에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현대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1) 음악교육사적 측면, 2) 음악교육철학적 측면, 3) 음악교사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음악교육사적 측면

이 항목에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과 그 영향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양음악교육사에서 에토스론의 토대는 피타고라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처음으로 펼친 인물은 플라톤이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에티우스에게 이어져 서양의 고중세 음악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플라톤의 음악교육은 이성이 영혼을 지배하도록 하는 훈련의 일환이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철학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의 지배원리가 철학에서 신학으로 이동한 중세사회에서 음악교육이 신학에 종속된 이유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민경훈 외, 2010: 22).

그러나 플라톤의 영향은 중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악이 방탕한 마음을 조장하기 쉽다는 근대 철학자 로크(J. Locke, 1632-1704)의 경고, 그리고 음악이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기에 어린이들의 교육에 해롭다는 프랑케(A. Franke, 1663-1727)의 경고는(민경훈 외, 2010: 24에서 재인용) 인간의 영혼을 염려하며 향락적인 음악들을 배제하려던 플라톤의 주장에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성을 통한 지식추구만을 인정하고, 이성이 아닌 정서와 감각으로는 지식에 도달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주지주의를 내세웠던 플라톤의 그늘로부터 음악교육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여 년 전의 일이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일환으로 음악교육에서 미적 감수성 함양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다(민경훈 외, 2010: 33), 현재는 독일 특유의 지적발달 중시 풍조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은 자율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단계부터 음악의 미적 경험과 가치판단을 위한 교육이 실행되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다(함희주 외, 2012: 89-90, 107).

미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1950년대 이후 심미적 음악교육관이 형성되기 전에는 플라톤의 사상에서 비롯된 음악교육관이 미국에서 가장 주도적인 음악교육철학이었기 때문이다(권덕원, 1999: 3). 1967년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메사츄세츠주 탱글우드에서는 미국음악교육자협회(MENC)의 후원을 받아 버크셔 음악 센터, 테오도어 프레스 재단, 보스턴대 예술대학과의 협조로 진행된 대규모 연석회의인 탱글우드 심포지엄(Tanglewood Symposium)이 개최되었다. 이 심

포지엄의 개최목적은 현대 미국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역할을 규명하고 토론하며, 음악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이 중 첫 번째 항목이 ‘음악이 그 자체가 예술로서 유지될 때 최상으로 기여한다’(Music serves best when its integrity as an art is maintained)는 것이었다(민경훈 외, 2010: 37; Mark, 1992: 76-95). 다시 말해 미국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은 불과 50년 전의 일이었으며, 음악을 포함한 예술교과에 대한 미국 학생들의 이수 의무가 담긴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것은 1994년이 되어서야 가능하였다. 이때 연방 정부 법률로 제정된 미국 교육법 ‘목표 2000’(Goals 2000, Educate America Act)은 미국의 초중등교육이 2000년까지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하는 기준을 8개의 항목에 걸쳐 제시하고 있으며, 음악을 포함한 예술교과목의 의무이수 규정은 제 3항에 ‘모든 학생은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사회, 경제, 예술, 역사, 지리를 포함하는 도전적인 교과에 대한 능력을 입증한 후에 비로소 4학년, 8학년, 12학년과정을 수료하게 된다(All students will leave grades 4, 8, and 12 having demonstrated competency over challenging subject matter including English, mathematics, science, foreign languages, civics and government, economics, the arts, history, and geography)고 명시되어 있다.²²⁾

이처럼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2500여 년 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양음악교육사의 형성기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강력

22) https://en.wikipedia.org/wiki/Goals_2000. ‘목표 2000’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함희주 외(2012: 115-116)를 참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학교음악교육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방금주, 민경훈(2007: 197-201)을 참고.

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론적 토대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작업으로서, 음악교육사적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음악교육철학적 측면

가. 미국과 독일, 그리고 한국

선진국들의 학교 음악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통합음악교육과정은 타 교과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면서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방금주, 민경훈, 2007: 238), 독일은 감각과 감정체험을 중시하는 초등단계를 거쳐 이론적 지식과 사고능력을 통해 음악이해를 도모하는 등 학문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중등단계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음악교육과정이 제공될 뿐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에서도 음악이 필수이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민경훈, 2007: 2, 15-16).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 중등 음악과교육과정에서는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인적 인간의 육성이라는 목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요원한 상태이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 음악교육은 시수가 축소된 제 6차 교육과정, 2007년의 평가기록방식 변경, 예술교과군으로 분류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입시위주 과목만 공통과목으로 부활된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을 차례로 거치며 지속적으로 위상이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학습자의 무관심과 음악교사의 역할 축소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2015 교육과정 개정안 음악, 미술 공동대책위원회, 2015: 228).

물론 이러한 난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른바 ‘스

푸트니크 쇼크'²³⁾ 이후 학교교육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교과목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 즉 교육철학을 재정립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리머(B. Reimer)와 엘리엇(D. Elliott)의 철학도 확산될 수 있었다(민경훈 외, 2010: 63-65). 이들은 논쟁과 상호보완의 과정을 겪으며 심미주의, 실천주의, 그리고 경험주의라는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교육철학을 낳았고, 학교 교육 현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현대 미국 학교음악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독일의 현행 학교음악교육에서도 루소(J. J. Rousseau 1712-1778)의 자연주의, 그리고 슈타이너(R. Steiner, 1861-1925)의 인지학에 근거한 철학적 영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민경훈, 2007: 16).

나.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철학적 가능성

위에서 예를 든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다양한 음악교육철학이 학교 교육 현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실용적인 이론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거듭되면서 비로소 학교 음악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음악교육을 축소하고 다른 가치나 목표에 음악교육을 종속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음악교육의 본질

23) 냉전시기 체제경쟁대상이었던 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세계 최초의 인공 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의 과학기술과 교육부문 전반에 걸쳐 번진 충격이다. Mark는 이 충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957년 10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은 소련이 항공 기술면에서 미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측면 뿐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Mark, 1992: 25).

적 의의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철학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가 이론적 근거가 되어 실제 학교 음악교육 현장과 결합하게 될 경우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전인적 인간육성이라는 목표와 학교음악교육 현장과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 탐구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이 위기의 돌파구를 열어줄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에게 음악은 예술 교과군을 이루는 여러 개별교과 중 하나가 아닌, 인간의 영혼을 빚어나가는 첫 단계의 필수 교과목이었고 결코 다른 과목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교과목이었다. 이는 음악 안에 인간의 영혼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로소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인성발달 등 다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음악교육을 주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교육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조화로운 영혼이 형성되고, 비로소 수학, 변증술 등 다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전인적 인간육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행과제는 다름 아닌 철학적 접근에 대한 성찰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160).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음악교사론적 측면

가. 훌륭한 음악교사

음악교사의 자질은 학교음악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음악교육학 내부에서 음악교사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성경희는 학생들을 감화할 수 있는 인품과 음악적 능력, 그리고 교육 전문직 수행능력을 음악교사의 자격으로 논하였고(성경희, 1988: 293-298), 호퍼(C. Hoffer) 역시 훌륭한 음악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며,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능력을 갖추는 뿐만 아니라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철저히 연마한다고 해설한다(Hoffer, 2001: 57-82). 한편, 미국음악교육자협회(MENC)와 미국음악대학협회(NASM)에서는 각각 음악교사의 자질을 일곱 가지로, 전문적 교수기준을 위한 미국이사회(NBPTS)에서는 여덟 가지로 요약하였는데²⁴⁾,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호퍼와 성경희가 공통적으로 논한 요건인 인품, 음악적 능력, 그리고 직무 전문성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인품을 가진 교사가 탁월한 음악 능력과 직무 전문성을 겸비한다면 우리는 그를 훌륭한 음악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음악교사가 왜 훌륭해야 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음미하도록 유도한다.

나. 음악교사는 왜 훌륭해야 하는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그의 당대까지 그리스인들의 음악교육을 담당하였던 음악가들의 역할을 철학으로 대체하려던 시도였다. 따라서 기존의 음악가는 추방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철학자가 음악을 교육

24) 민경훈 외(2010: 386-387, 399-400)에서 재인용.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이상국가에서 철학자는 곧 통치자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음악교육의 권위가 곧 국가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위와 진리를 인식하는 학문적인 권위와 일치한다는 점과, 개별교과의 지식전달이 아닌 인간의 영혼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하여 최고의 지성을 연마한 집단이 음악교육을 위해 나선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상국가에서 인간의 영혼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음악교육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플라톤은 음악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이러한 절대적 중요성을 부여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주로 에토스론에 집중하여 음악교사론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그의 에토스론 뿐만 아니라 음악교사론까지 포괄하여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서 절대적으로 고양된 음악교사의 지위는 음악교사론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음악교사가 가져야 할 자긍심의 근원이 되며, 탁월한 음악능력과 전문성 확보 과정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IV. 결론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인류지성사에서 음악교육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해 최초로 제기된 체계적인 논의일 뿐만 아니라,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교육사상 중 하나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지닌 위상과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를 중심으로 그 동안 자주 다루어져왔던 에토스론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그의 초기 작품인 『이온』과 후기 작품인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며 그의 음악교육사상에서 비롯되는 딜레마를 세 가지로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여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의 시대는 30여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전통과 가치관이 무너진 상황에서 소피스트들로 알려진 궤변론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상대주의가 만연하던 때였다. 이에 대한 플라톤의 대응은 해체되어 가는 공동체와 문화, 인간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앞에 이데아론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도덕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주목하였고, 이성의 함양을 통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은 이 지점에서 다른 어떤 과목보다 음악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발하고자 하였다. 그는 좋은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음악이 영혼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에토스론에 입각하여 노랫말, 선법, 리듬, 악기 등에 각각 철

제한 규제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플라톤의 음악교육에는 신들에 대한 찬가, 훌륭한 사람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 도리아 선법과 프리지아 선법, 우아하고 단순한 리듬, 리라와 기타라만이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음악교육사상은 이 에토스론의 실현에서 그치지 않는다.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한 개별 과목의 담당자가 아닌 인간의 영혼 형성의 최초시기를 책임지는 극도의 중요성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음악가들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플라톤은 이들이 이데아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모상의 모방자일 뿐이며 신들린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영혼의 열등한 부분인 감정과 욕구만 자극할 뿐 가장 훌륭한 부분인 이성을 훼손하는 자들이라며 비난한다. 이어 플라톤은 철학자들이 영혼을 돌보는 전문가들이며,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참된 음악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음악가들임을 내세워 기존의 음악가들이 누리온 지위를 철학자들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국가』 내부의 논의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온』과 『법률』을 통해 좀 더 넓은 시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감정과 이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킨다. 이성으로 무장되어야 할 인간의 영혼을 음악가들이 황폐화시킨다는 것이 플라톤의 진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음악교육사상에 미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음악을 철학에 끊임없이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Rosen, 1988: 14). 리머(B. Reimer)의 심미주의 음악교육철학 등 현대 음악교육철학사에서 이정표를 세워온 중요한 흐름들이 플라톤의 이러한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 음악교육철학의 생성배경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뿐만 아니라 이 사상에 담긴 중요한 함의를 포착하여 이를 실제 학교음악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플라톤은 인성발달 등 다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음악교육을 주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교육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조화로운 영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음악교육을 축소하고 다른 가치와 목표에 음악교육을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방어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철학적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재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전인적 인교육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행과제는 다름 아닌 철학적 접근에 대한 성찰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160).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철학자가 통치와 음악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음악교육의 권위가 곧 국가를 통치하는 권위와 진리를 인식하는 학문적인 권위와 일치한다는 점과, 개별교과의 지식전달이 아닌 인간의 영혼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하여 최고의 지성을 연마한 집단이 음악교육을 위해 나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음악교사의 지위는 음악교사론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음악교사가 가져야 할 자긍심의 근원이 되며, 탁월한 음악능력과 전문성 확보 과정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플라톤은 음악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이러한 절대적 중요성을 부여한 가장 영향력있는 사상가였다.

본 논문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에토스론에 국한시키지 않고,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담긴 여러 대화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후 현대 중등음악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시도였다. 이를 통해 수립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의 심도있는 이해를 통해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사론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성과 감정이라는 플라톤의 이분법을 넘어 음악의 내재적 가치가 합당하게 전제된 음악교육론의 실제 사례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텍스트 번역본]

- 플라톤. (1997). 국가 (박종현 역). 서울: 서광사.
(2009). 크리톤 (이기백 역). 서울: 이제이북스.
(2009). 법률 (박종현 역). 경기: 서광사.
(2013). 국가 (천병희 역). 경기: 도서출판 숲.
(2014a). 소크라테스의 변명 (강철웅 역). 서울: 이제이북스.
(2014b). 이온/크라틸로스 (천병희 역). 경기: 도서출판 숲.
(2016). 법률 (천병희,역). 경기: 도서출판 숲.
- Plato. (1925). *Ion* (translated by W. R. M. Lamb).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29). *Laws* (translated by G. B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Republic* (translated by Paul Shore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단행본]

- 강철웅 외. (2013). 서양고대철학 1. 서울: 길.
김을. (2010). 서양고대미학사 강의. 경기: 한길사.
김인곤 외. (2005).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서울: 아카넷.

- 민경훈 외.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민은기 외. (2014). 서양음악사 1. 서울: 음악세계.
- 성경희. (1988). 음악과교육론. 서울: 갑을출판사.
- 함희주 외. (2012). 세계의 학교 음악교육과정. 경기: 교육과학사.
- Bowman, W. D. (1998). 음악철학 (서원주 역). 서울: 까치글방 (원서출판 1998).
- Grout, D., C. V. Palisca, J. P. Burkholder (2009).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 7판) 상권 (민은기 외 역). 서울: 이엔비플러스 (원서출판 2006).
- Havelock, E. (2011). 플라톤 서설 (이명훈 역). 서울: 글항아리 (원서출판 1963).
- Hoffer, C. (2001). 음악교육론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원서출판 2001).
- Ladnells, J (1999). *Music in Ancient Greece and Rome*. New York: Routledge.
- Mark, M. L. (1992). 현대의 음악교육 (이흥수 외 공역). 서울: 세광출판사 (원서출판 1977).
- Read, H. (2007). 예술을 통한 교육(황향숙 외 공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45).
- Rosen, S. (1988). *The Quarrel Between Philosophy and Poetry: Studies in Ancient Thought*. New York: Routledge.
- Strunk, O., L. Treitler. (2002). 서양음악사원전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역). 서울: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원서출판 1998).
- West, M. L. (1994). *Ancient Greek Music*. Oxford: Clarendon Press.

[연구논문]

- 권덕원. (1999). 베넷 리머의 음악교육 철학에 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18, 1-18.
- (2016). 인성교육을 위한 음악교육의 역할. 미래음악교육연구, 1 (1), 1-21.
- 권혁성. (2007). 서양 고대미학의 주요 흐름들에 대한 소고. 미학의 역사, 3-54.
- (2012). 플라톤에 있어서 미메시스와 예술-『국가』를 중심으로. 미학, 69, 1-48.
- 김남두. (2007). 플라톤의 예술 이해. 미학의 역사, 55-79.
- 김영정. (1998). 플라톤 이상국가에서의 예술가의 지위. 철학논구, 26 (0), 35-44.
- 김종부. (1990). 공자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연구. 음악교육연구, 9 (1), 149-187.
- 김춘미. (1993). 플라톤의 『국가』와 음악. 낭만음악, 20, 77-112.
- 민경훈. (2007). 독일 중등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분석 연구. 예술교육연구, 5 (1). 1-18.
- 방금주, 민경훈 (2007). 미국의 통합 음악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낭만음악, 19 (2). 195-243.
- 서승원. (1992). 플라톤의 시와 예술에 대한 비판. 서양고전학연구, 6, 61-95.
- (1993). 시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미학, 18, 143-158.
- 송유레. (2014). 덕 (德)의 미메시스: 플라톤의 시 개혁. 철학, 121,

51-77.

- 이선채. (2007). 고대 그리스와 중국 철학자들의 음악교육사상. 영유아 교육연구, 10, 151-168.
- 조경아. (2010). 교회 선법의 기원과 생성, 발전 - 고대 그리스에서 16세기까지. 음악학, 19, 69-120.
- 허민준. (2016). 4학 (quadrivium) 교재의 형성과정: 보에티우스를 중심으로. 서양고대사 연구, 45, 223-248.
- Annas, J. (1998). "Plato on the Triviality of Literature". In N. D. Smith (Ed.), Plato: critical assessments (pp. 273-295). London: Routledge.
- Halliwell, S. (2011). "Plato" In T. Gracyk and A. Kania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Philosophy and Music (pp. 307-316). London: Routledge.

[학위논문]

- 강연주. (2010). 그리스의 음악교육과 사상에 대한 연구: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지혜. (2012). 고대 그리스의 에토스론과 중.고등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애. (1989). 고대 철인들의 음악교육사상 연구: 공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2010). 초등교육에서 "서사적 경험"의 의미 : 플라톤의 시가교육론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 (1994). 고대 그리이스의 음악교육 철학: 플라톤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부. (1986). 공자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후량. (2003). 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그리스 에토스 (Ethos)론의 당위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영수. (2000). 플라톤의 음악교육 사상이 현대의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택석. (2001). 플라톤의 무시케 (Mousike) 교육론: 지식의 획득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지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인애. (2010). 고대 그리스 음악교육과 사상에 대한 연구: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의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구. (2009). 플라톤의 Ethos론을 적용한 창의적 음악교육 모형: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희정. (1998). 서양의 중세이전의 음악교육.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수안. (2006). 고대 음악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그리스의 에토스 (Ethos)론과 중국의 「악기 (樂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효선. (2008). 고대 그리스 음악 교육관에 대한 연구: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은진. (1997).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라. (1993). 공자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비교연구: 논어와 『국가』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원. (1995). 고대 그리이스 음악관의 현대적 의의: 플라톤과 아리스

- 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돈. (1998). 플라톤 교육론에서 예술과 도덕의 상호보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리. (2010). 플라톤의 에토스론을 적용한 통합적 음악교육 : 제 7차 중학교 1학년 개정 교과서 음악 신문 만들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화선. (2009). 플라톤과 프뢰벨의 전인 교육을 위한 음악 교육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희. (2011). 『국가』론에 제시된 무시케 (mousike)교육의 의의.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호철. (1985).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향숙. (2013). 플라톤의 음악교육론이 현대 음악교육에 주는 의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타]

- 교육부. (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2). 서울.
- 2015 교육과정 개정안 음악, 미술 공동대책위원회. (2015).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음악, 미술 교과의 입장. 음악교육연구, 44 (3), 227-22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2030년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교과교육 방향 및 과제탐색을 위한 세미나.

Abstract

A Re-consideration of Plato'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Seohyung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to point the way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Plato'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His theory has exercised unparalleled influence in the whole history of scholarship, not only due to it's being the first theory in this field but also it's systematic approach and normative justifiability of the music education. However we have not given decisive arguments for the meaning of his ideas on a deeper level, despite of its impact and status. Many scholars who have analysed his arguments, have focuses on the doctrine of *Ethos*. However, the dilemmas which follow as a necessity from his

arguments cannot be solved in that way. Thus, a proper understanding of his ideas on music education has been prevented.

The argument over Plato's view of music education is not closed and further exploration might prove illuminating or even necessary. Of course, Plato tightens regulations on lyrics, modes, rhythms and instruments, resting heavily on the doctrine of *Ethos* in his dialogue *Republic*. But his ideas face the tantalizing problems at the first stage of its realization: 1) Who gives lessons in music? 2) Who composes and play the music? 3) Are musicians subject to banishment, or censorship in his ideal state? Conclusions drawn through the close text analysis of *Republic*, *Laws*, and *Ion* that the music education should be practised not by musicians but by philosophers. In his view where only a binary system of reason and emotion exists, there is no room to fulfill aesthetic sensitivity and requirements. That is, music can be neither taught nor enjoyed outside its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with philosophy in Plato's ideal state. In this sense our contemporary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can be seen as a reaction to his unyielding attitude towards music.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ignificant implications in his ideas which we can apply to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The role as well as significance of music education has been downplayed all too often in Korea. If we are to break in this deadlock, Plato's view which asserts the absolute status of music education can provide us a firm philosophical foundation. Moreover, we cannot fail to notice that the music teachers occupy the most prominent position in his ideal state. If

we are to seek a proper prerequisite for the self-esteem of music teachers, Plato's idea may give us a sufficient answer.

keywords : Plato, Music education, *Ethos*, Music teacher, Philosophy of Music.

Student Number : 2003-22113